넓은 시야로 100%의 안전관리 위해 노력할 터

제35호 LG전자 평택공장 조상무 차장

2005년 을유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해의 아쉬움과 새로운 날의 희망찬 계획으로 설레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네 안전인도 다르지 않다. 그간의 안전을 되돌아보며 새해에는 보다 활기차고 체계적인 안전으로 사업장 곳곳을 맞이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이어진다.

경기도 평택에서 새로운 출발과 도약으로 2005년을 준비하는 LG전자 평택공장 조상무 차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안전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대학 시절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전공공부를 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아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졸업 후 LG전자에 입사,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안전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야만이 그 진가를 발휘한다.

18년째 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그는 안전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야만이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평소 원론적인 교육보다는 사례를 들어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임을 알리고, 근로자 스스로 느껴 행동할 수 있는 안전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정기적인 안전관리 개선사례 발표회, 부서별 자율안전관리활동과 무재해 1000일 돌파운동을 실시하고, 스트레칭 포스터를 자체 제작·보급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도모한다. 특히, 3500여명이나 되는 전 사원의 1인 1소화기 사용실습훈련은 유사시 대처능력 배양과 함께 가정안전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인다.

99.99%가 아니라 100%가 될 때만이 진정한 안전관리가 이룩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그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꾸준한 연구·개발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에 업무중의 안전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체육대회, 출퇴근 등 비업무 영역까지 확대하는 넓은 시야로 진정한 100%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는다.

평소 여가시간을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함께 한다는 그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 넉넉한 마음 그대로 직장으로 옮겨와 마음이 통하는, 마음을 움직이는 안전으로 2005년을 함께 할 것이라며 오늘도 현장으로 향하는 바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성호연 기자〉